

우리나라 MICE 뷰로의 글로벌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Global facilitation of the Korea's MICE bureau.

최병춘(Byeong-Choon Choi)

예원예술대학교 문화관광경영전공 부교수

목 차

I. 서 론	V. 결 론
II. MICE산업의 이론적 고찰	참고문헌
III. 국·내외 MICE 산업동향	Abstract
IV. MICE 뷰로 활성화 방안	

Abstract

Korea is leading in G20 summit beginning in 2011 and the 19th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UNWTO) to attract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meetings. The interests on MICE have been increasing. The MICE, from the mid-1990s, was launched in Singapore in terms of the convention industry leader in Asia, stands for corporate a generic term of Meeting, tourism award Incentive, Convention, and Exhibition.

The MICE has been showing many good results as a golden industry such that no pollution has occurred and the effect is very large invisible value can be created because most of the participant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are opinion leaders in each country and they can be Korea brand promoters in their home country after attending the conference and returning to.

Korea has been ranked at the world's 11th most-popular destination for international business meetings, confirming its world-class reputation for business events. Korea cities also featured highly on the list. Seoul was ranked seventh globally, while Busan jumped to sixth in Asia and Jeju came in at number eight. Changwon, Daegu, Daejeon, Gyeongju and Gwangju also made their debuts on the Asian list.

Consequently, the economic & political effects of MICE industry were investigated and accordingly the revitalization of the global MICE bureau was discussed.

Key Words : MICE, MICE bureau, Convention, Convention bureau

* 본 논문은 예원예술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수혜를 받은 논문임

I. 서 론

최근 들어 비즈니스 성격의 회의, 인센티브관광, 컨벤션, 전시를 아우르는 MICE산업이 수익성이 낮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육성할 필요성이 높은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2009년 정부는 17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MICE를 선정하였다. 지난 1월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가 관련 정부부처들과 함께 국정 핵심과제로 선정한 17대 신성장 동력산업 중에 MICE와 관광산업이 포함됐다.¹⁾ 이는 컨벤션산업이 호텔, 항공, 운송 등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개최국과 지역의 경제발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파생하는 미래성장형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은 지 거의 30년만의 일이다.

MICE산업은 21세기의 국가·산업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 1차적으로는 국제회의 및 컨벤션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설비 및 서비스 관련 산업, 전시 관련 산업을 지칭하나, 다양한 연관 산업효과를 가지고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특히 컨벤션산업은 관광·레저산업, 숙박·유통·식음료, 교통·통신 등 다양한 관련 산업을 포함하는 융·복합 산업으로 그 산업적 범위가 국가 간 경제·무역통상 외교의 매개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융합하고 촉진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²⁾

MICE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MICE에 BT(Business Travel) 분야를 접목하여 BT MICE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2015년 외래 방문객 1억 7천명 유치, 관광수입 105억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0조 2천억 원) 달성이란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와 MICE산업 관련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6월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 된 국제기업회의 '2009 허벌 라이프 아시아 태평양 엑스트라베간자'의 경우 외국인 2만 여명이 단 3일 만에 먹고 자고 즐기는 데 쓴 돈이 622억 원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되어 MICE 산업이 '외국인 3명 입국, 자동차 1대 수출효과'를 나타낼 정도로 직접 지출 외에 일일이 계량할 수 없는 홍보효과를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³⁾

1) 녹색기술산업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등 6개, 첨단융합산업에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등 6개, 고부가 서비스산업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 △녹색금융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관광 ; 2009년 1월 13일 정부발표.

2)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5.

3) <http://cafe.daum.net/sejongunlv> ; 신성장동력 MICE산업, 선두국가로 가기 위한 제언 “움직여라! MICE를 잡아라!” (인터넷

이러한 MICE산업의 성장여건에 비추어 최근 정부는 2010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적인 기업회의(Meeting),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산업 규모를 크게 늘려 이와 연계된 연간 수출통상액을 2015년까지 600억 달러로 끌어올리고 지역상권 및 관광지와 연계한 MICE패키지로 개발·육성하여 2015년까지 해외 참관 및 관광객 100만명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였다.⁴⁾

그러나 아무리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하여도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인적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전담기구인 공사의 'MICE뷰로'와 지방 컨벤션뷰로, 컨벤션센터 등이 상호 협력하여 유망 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활동을 강화하여 컨벤션 스타트랜드육성, Korea MICE Alliance 운영 등 MICE 개최 목적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MICE산업의 경제·정책적 인식을 바탕으로 인접 연관 산업의 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 견인, 막대한 외화 획득과 세수증대를 가져다주는 MICE산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MICE산업이 국가 간 글로벌 경제·문화 통상비지니스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는 MICE 뷰로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MICE산업의 이론적 고찰

1. MICE 산업의 의의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2011년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UN WTO)총회 등 굵직굵직한 국제회의를 유치하면서 마이스(MICE)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MICE는 1990년대 중반 아시아 컨벤션산업의 선두주자인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용어로⁵⁾ 국제기관, 협회 등이 정보교류 및 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와 비즈니스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주최 회의를 의미하며⁶⁾ 구체적으로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컨벤션

5) 김 죄태영 회장 기사) 재인용

4) 헤럴드경제, 2010년 06월 23일자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623000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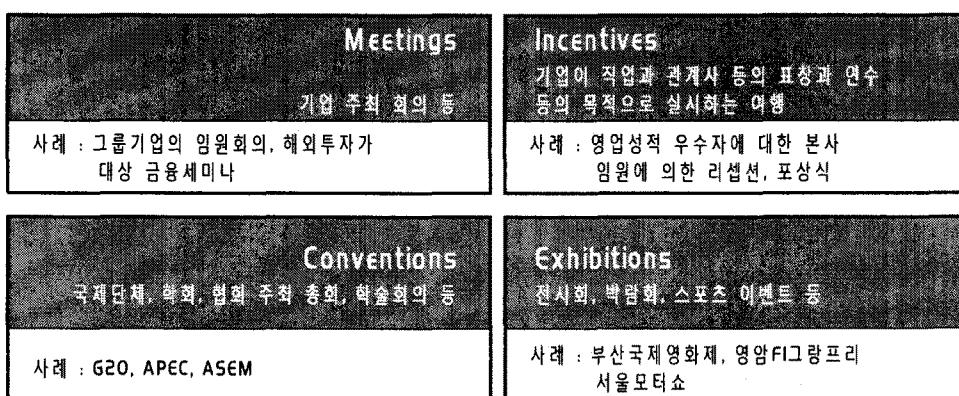
5)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79>

6) McCabe, V.,et al. The Business and Management of Convention. John Wiley & Sons, 2002.

(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총칭하는 말이다.⁷⁾ 이러한 MICE산업이 차세대 황금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데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며, 국제회의 참가자의 대부분이 각국 해당 분야의 여론 주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회의 참가 후 자국에 귀국하여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간접적인 홍보mann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회의 현장에 노출된 다양한 국내 대표 브랜드상품의 홍보효과는 상상을 뛰어 넘는 통상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즉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만찬장에서 대접하려고 준비한 지방의 전통주가 세계적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2005년 APEC의 공식 만찬주 중 하나로 선정된 전라북도 고창 서해안복분자주와 전주의 이강주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MICE는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녹색성장산업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역대표 브랜드상품의 수출 활로를 개척을 통하여 작게는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크게는 국가적으로 해외 글로벌통상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자료 : 주영민 외, “MICE산업의 기회와 도전”,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2010. 2. , p.1. 발췌
인용

[그림 1] MICE의 개념

한편 MICE 산업은 단기간 내에 대규모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21세기형 고부가가치

7) 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 2009/11/19, 13:47:43 입력 기사 인용

산업으로 개최국과 개최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문화교류를 촉진시키는 등 사회·문화적 효과도 매우 큰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회의 참가자 및 참관객(관광객 포함)들의 현지에서의 사회적 소비액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⁸⁾ 아울러 국제회의 참가국의 수반 및 주요 기업 대표자들 간의 경제통상 협약에 대한 포럼, 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관련국 간 무역통상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가 및 기업 간 경제·외교·통상 등의 산업간 융·복합 창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 MICE 산업에 대한 선행연구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으로 국가 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져 MICE 산업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경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환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MICE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인 프라투자, 세제감면혜택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이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MICE 산업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3월 관광경쟁력강화회의를 기점으로 MICE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여 MICE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MICE의 개념이나 범위 등의 이론적 배경이나 산업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MICE 산업에 대한 정책적 기반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규, 법령 등에 대한 연구가 컨벤션과 전시부문을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인센티브와 회의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주로 방문객들의 소비금액 등 경제적 효과를 다룬 극히 제한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⁹⁾

그러나 최근 들어 G20 정상회담의 우리나라 개최 전후 2~3년을 기점으로 한국관광공사, 삼성경제연구소, 국제지역학회, 한국관광학회, 한국컨벤션학회 등을 중심으로 MICE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8) 이용민, “제주지역 컨벤션 참가자의 만족 및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 서비스 품질과 관여도를 중심으로”, 부경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9) Lau, Chloe K. H., Milne, S. and Johnson, Charles S. "MICE, ICT,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The Case of Te Kahurangi, New Zealand," *Journal of Convention & Event Tourism*, Vol.7 No. 1, 2005, pp.61-75. ; 안경모, 주현식, 김수정, “한국의 MICE산업 발전요인이 중앙정부 전담기구의 역할 및 산업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연구」 제12권 3호, 2008, p. 271 재인용

<표 1> MICE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년도	주 제
컨벤션 전시 (CE)	한진수 김태현	1999	관광산업에 있어서 컨벤션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박숙진	2003	한국컨벤션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원봉	2003	컨벤션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최정자 주현식	2003	전시참가자 동기와 만족에 관한 연구: 국내 서울, 부산, 대구,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박창수 조덕현	2006	컨벤션마케팅조직의 경제 기여도에 대한 연구 -대구지역을 사례로-
인센티브 회의 (MI)	안경모 주현식 김수정	2008	한국의 MICE산업 발전요인이 중앙정부 전담기구의 역할 및 산업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 공사	2008	한국의 MICE산업 발전방안
	삼성경제 연구소	2010	MICE 산업의 기회와 도전

자료 : 국내 MICE 관련 주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자료검색에 의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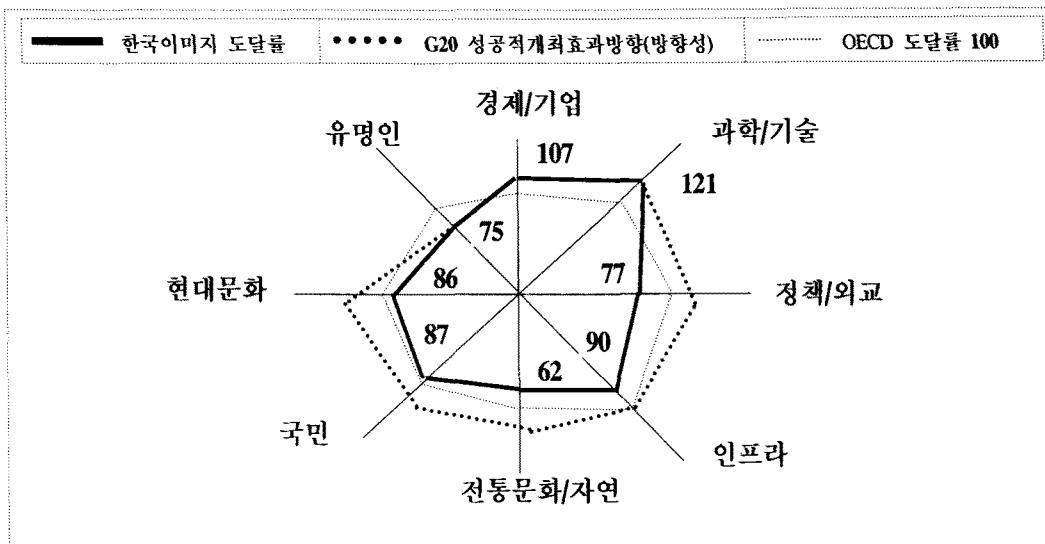
3. MICE의 파급효과

컨벤션개최를 통하여 발생되는 MICE 산업의 파급효과는 개최도시나 해당국가의 제반 여건에 따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경제적 효과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 개최도시의 세수증대, 고용기회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소득증대효과, 국제수지개선 등을 들 수 있으며, 개최국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방문자에게 체험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효과, 그리고 관광산업적 측면의 대량관광객의 유치, 관광시장의 비수기 타개책 및 시장다변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MICE 산업의 파급효과에 대하여 안경모·주현식·김수정(2008)은 경제·사회·관광의 3가지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MICE산업은 종합적인 서비스산업으로 회의장, 숙박시설, 음식점, 운송업체, 관광업체 등을 비롯한 사회 각 산업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개최국이나 개최지역 및 도시의 소득증대, 고용증대, 세수증대를 유발하여 경제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MICE 방문객들은 지출금액이 레저목적의 일반여행자들보다 훨씬 높고, 행사의 규모가 커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

문이다. 또한, 관광비수기에 숙박업, 항공업, 회의개최시설, 식·음료업 등 관련 서비스제공업계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¹⁰⁾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MICE산업은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한 개최지역 주민의 글로벌감각 함양 등을 통하여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국제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G20과 같은 대규모 정상회의의 경우 세계유수 언론에 대한 집중조명을 통하여 국가브랜드 순위를 2~3단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¹⁾ 아울러 개최지의 기반시설을 확충 및 복합적 기능향상, 개최국의 브랜드 이미지향상 및 국제적 위상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MICE의 지방자치단체 분산개최를 통한 지방의 국제화(Glocalization)와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개최 국가와 개최지자체(도시)들이 컨벤션 브로(Convention Bureau)를 설치하여 MICE산업 유치증대 활동과 회의주최자·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¹²⁾



자료 : 이동훈, “서울 G20 정상회의의 기대효과”, 「CEO information」772호, 삼성경제연구소 2010. 9, p.6,

[그림 2] G20 정상회의의 국가브랜드지수 상승효과

10) Johnson, L. "MICE- Size and Economic impact of the meeting sector", BTR Tourism Research Report, 1, 1999, pp.9-18 : MICE는 1999년 미국경제에 있어서 402억불의 수입창출에 기여했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컨벤션과 인센티브가 연간 2,600만 NZD 이상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 Lau, Chloe K. H., Milne, S. and Johnson, Charles S. "MICE, ICT,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The Case of Te Kaurangi, New Zealand," Journal of Convention & Event Tourism, Vol.7 No. 1, 2005, pp.61-75.

11) 이동훈 외, ‘서울 G20 정상회의의 기대효과’ 「CEO information」, 772호, 삼성경제연구소, 2010, pp.5~8.

12) 안경모 · 주현식 · 김수정, “한국의 MICE산업 발전요인이 중앙정부 전담기구의 역할 및 산업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연구」 제12권 3호, 2008, pp. 269-291.

아울러 MICE 산업은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개최기간 동안 양질의 관광객(참가자 포함)을 대량으로 유치할 수 있어 계절을 불문하고 관광비수기에도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업계의 비수기 타개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본 행사개최 전·후 기간 동안의 관광, 쇼핑 활동을 통하여 국가 이미지 홍보효과를 제고시킴과 동시에 교통, 항공, 숙박, 유통업, 관광 등 연관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성장효과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 MICE의 파급효과

주최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 주최기관의 국내외적인 위상 강화 - 개최준비 적게는 1~2년, 길게는 3~5년 이상기간이 필요 - 각종 안내서 및 미디어를 통한 참가자 유치증대의 홍보를 전 세계의 관련기관 및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 - 개최 후에는 출판물, 논문집, CD-Rom 등의 기록물이 대부분 영구히 보존 - 컨벤션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주최측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국내외에 크게 강화
관련 분야 종사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정보 및 기술습득(컨벤션을 국내에 유치했을 경우에는 등록비와 다소의 체재비 외에는 별도의 경비가 필요 없다. 즉, 다수의 인원이 적은 경비로 외국의 최신정보와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음) - 외국에서 개최 되는 컨벤션에는 기업이나 단체, 기관에서 많은 사람을 참가시킬 수 있지만 국내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다수의 인원이 관련분야의 회의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정치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십 개국의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므로 국가홍보에 기여하는 바가 큼 - 회원자격으로 참가하는 미수교국 대표와 교류기반을 조성할 수도 있어 국가외교면에서는 커다란 기여를 하며, 또한 컨벤션 참가자는 대부분 해당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사이며, 그 국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므로 민간 외교 차원에서도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사회·문화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벤션은 외국과의 직접교류를 통해 지식/정보교환/참가자와 개최국 시민간의 접촉을 통한 시민의 국제감각함양 등 국제화의 중요한 수단 - 컨벤션유치/기획/운영의 반복은 개최지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향상 - 개최국 이미지향상, 국제사회에서의 위상확립 등 개최국의 지명도향상에 기여 - 방으로의 컨벤션 분산개최는 지방의 국제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큰몫
국가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济적 효과 - 컨벤션은 개최국의 소득향상효과 (회의 참가자의 지출 → 서비스산업 등 수입증가 → 시민 소득창출), 고용효과(서비스업 인구 등 광범위한 인력흡수), 세수증가효과 (관련 산업발전 → 법인세 → 시민소득증가 → 소득세) 등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 - 참가자들 직접 대면으로 상호이해 부족에서 올 수 있는 통상마찰 회피가능 - 선진국의 노하우를 직접 수용함으로써 관련 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관광 산업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비수기 타개, 대량 관광객 유치 및 양질의 관광객 유치효과 -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개최가 가능하며, 참가자가 보통 1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이상에 이르므로 대량 관광객 유치 - 컨벤션 참가자는 대부분 개최지를 최종 목적지로 하기 때문에 체재일수가 길며, 일반관광객보다 1인당 소비액이 높아 관광수입측면에서 막대한 승수효과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발전, 도시환경 개선, 국제 친선도모, 시민의식 국제화에 크게 기여

자료 : 주영민 외, "MICE산업의 기회와 도전",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2010. 2.와 한국관광공사 코리아컨벤션뷰로, '국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2008을 참조하여 재구성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적 측면의 경우, MICE 관광객은 보통의 패키지나 개별여행객보다 씀씀이가 훨씬 커서 국제회의 참가자들의 1인당 직접지출은 평균 2,488달러로 일반 관광객의 2.8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MICE 관광객 3명이 방문하면 1,500cc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한국관광공사(2009)는 '2009, MICE산업 통계조사연구'에서 MICE산업의 고용 창출효과는 3,759,153백만원, MICE 산업 종사자의 1인당 평균 고용비용(연봉)은 약 25,925천원, 일자리 창출규모는 약 14.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¹⁴⁾

또한 국내에서의 외국인 지출규모는 약 1조 1천억원으로 외화가득률이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인 90%로 나타나 이 수치를 전 산업에 적용할 경우 MICE산업으로 인한 실제 수출효과는 약 1조원으로 파악되어 내수경기의 활성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MICE산업의 GDP 기여율은 약 0.3%로 MICE산업의 외화가득률(90%)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산업의 2배로 GDP 대비 약 0.6%의 기여율을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 이동훈, "서울 G20 정상회의의 기대효과", 「CEO information」772호, 삼성경제연구소2010. 9, pp.14~88
을 참조하여 필자 작성

[그림 3] G20 정상회의 개최의 경제적 효과

13)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 개장 5년차인 2015년이 되면 연간 384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생산유발효과 1조 1593억 원, 소득창출 2,563억 원, 세수효과 484억 원, 고용창출효과 2만 4145명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이경수(지식경제부 홍보기획담당관실)

14) 한국관광공사, 2009 MICE산업 통계조사 연구에서 발췌 재구성.

삼성경제연구소(2010)는 2010년 11월 11~12일까지 우리나라 서울 및 경주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가져오는 경제효과가 쏘나타 승용차 1백만대,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1백65척(대당 1억1천만 달러)을 수출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맞먹는 24조원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행사자체의 직접효과 1천23억원, 간접효과 21조4천5백53억~24조5천3백7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⁵⁾

III. 국·내외 MICE 산업동향

1. 우리나라의 MICE 개최 동향

1) 국제회의 개최 현황

2009년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개최건수가 2008년 293건 대비 18.4% 증가한 347건으로 세계 1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세계 국제회의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발표하는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UIA)로 부터 2009년도 세계 국제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총 11,503건의 국제회의가 개최됐으며, 이 중 한국은 총 347건의 국제회의를 개최, 세계 11위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참가자수는 총 120,011명으로 집계 되어, 전년(88,294명) 대비 35.9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제회의 개최건수가 104건에서 347건으로 290% 증가하여 싱가포르와 더불어 국제회의 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세계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2005년 APEC,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기반으로 주요 국제회의 개최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회의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정책적 지원의 증가와 싱가포르, 일본 등의 약진으로 주변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실적을 보면 서울이 151건으로(2008년 125건) 세계 9위, 아시아 2위를 차지했고, 제주가 61건으로 세계 29위(아시아 6위), 부산(41건) 세계 45위(아시아 10위)를 기록, 전년에 이어 서울, 제주, 부산 3개 도시가 세계 순위 50위 안에 들었다. 이밖에, 인

15) 2005년 APEC 부산 정상회의 경우 7천여명이 참가를 기준으로 2010년 G20의 경우 참가자 1만여명으로 추산하여 계산한 수치로 외국인 참가자 소비지를 4백90억원, 부가가치창출 5백33억원으로 계산 된 수치임 ; 이동훈 외, '서울 G20 정상회의의 기대효과' 「CEO information」, 772호, 삼성경제연구소, 2010. 9, pp.1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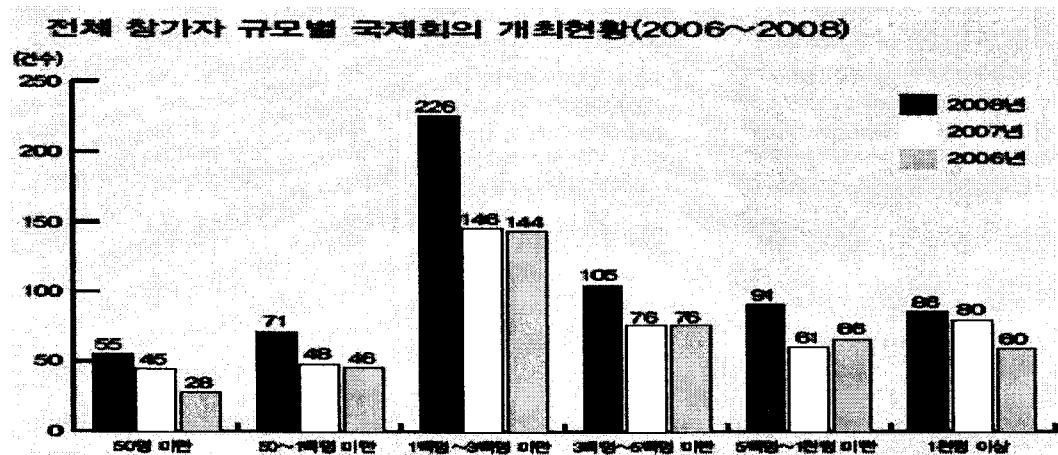
천은 26건 국제회의 개최로 전년 대비(2건) 24건이 증가함으로써 한국의 국제회의 개최 주요 도시로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줬고, 대전 23건(2008년 14건), 대구 8건(2008년 5건) 등 지방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 또한 꾸준히 증가 추세다.¹⁶⁾

2) 우리나라 국제회의 개최의 특징

(1) 특정 계절 집중형 개최

2008년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를 월별로 살펴보면 10월에 139건을 개최해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1월 90건, 6월 70건순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의 월별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10월을 중심으로 주로 가을에 국제회의가 가장 많이 개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절 집중형 개최현상은 MICE 산업이 계절에 관계없이 관광비수기에도 숙박업, 항공업, 회의개최시설, 식·음료업 등 관련 서비스제공업계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상치되는 경향을 띠고 있어 지속가능한 미래 녹색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6~2008 국제회의 개최현황 발간자료 참조

[그림 4] 규모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2008년도에 개최된 국제회의를 전체 참가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420건 중 50~300명 미만(218건), 300~500명 미만(76건), 500~1,000명 미만(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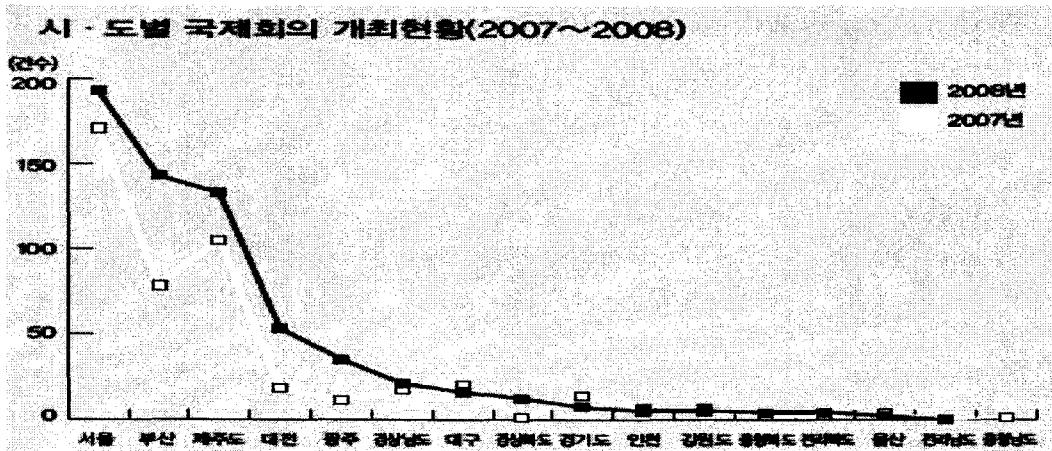
16) 한국관광공사, '2006~2008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9, 11 발행 참조 ; <http://k-mice.visitkorea.or.kr/>

건), 1,000명 이상(60건) 순으로 나타났다. 300명 미만의 중소규모 회의가 총 352건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고, 300명 이상의 중·대규모 회의는 282건으로 48.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1천명 이상의 대규모 회의의 경우 개최 비율이 '07년 17.54%에서 '08년 13.56%로 줄어든 반면, 100~300명 미만의 중·소규모 회의 비율은 '07년 32.02%에서 '08년 35.65%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1천명 이상의 대규모 회의 유치율 감소는 국가 및 도시 간 치열한 유치경쟁, 시설 및 인적 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규모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지만 소규모 회의유치에 비하여 기하학적인 과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국가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지방 분산화 경향 확대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93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산광역시(143건), 제주특별자치도(133건), 대전광역시(53건), 광주광역시(35건)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전체의 30.39%를 차지하여, 3년 연속 전체 회의 개최 건수 대비 구성비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산(22.52%), 제주(20.94%), 대전(8.35%), 광주(5.51%), 경상남도(3.31%) 등 지방의 국제회의 개최비중(69.61%)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국제회의 개최의 지방 분산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06-2008 국제회의 개최현황 발간자료 참조

[그림 5] 시도별 국제회의 개최현황

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634건 중 260건이 호텔에서 개최되어 전체 대비 41.01%의 비중을 차지했고, 컨벤션센터·전문전시장이 215건 개최로 33.91% 비중을 차지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호텔과 컨벤션센터가 주요한 국제회의 개최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과학 기술’관련 회의가 122건으로 총 634건 중 19.24%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의학’ 75건, ‘사회과학’ 71건, ‘자연과학’ 52건, ‘경제/금융’ 43건 순으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해외 MICE 산업의 현황

1) 주요국의 MICE 산업의 경제적 규모

2008년 기준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건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1,079건(9.73%)¹⁷⁾으로 1위, 프랑스가 797건(7.19%)으로 2위를 차지하여, 세계 순위 1, 2위는 2002년 이후 변함이 없는 것으로¹⁷⁾ 나타났으며 싱가포르가 637건(5.75%)으로 3위, 일본이 575건(5.19%)으로 4위를 차지, 세계 순위가 전년 대비 각각 1단계씩 상승함으로써 아시아의 2개 국가가 전년에 이어 세계 순위 5위권 안에 포함되었다.

<표 3> 2008~2009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순위

(Top international meeting countries in 2008~2009)

Country	Number of meetings	Country	Number of meetings	Percentage of all meetings (11,486건/2009년)
	2009		2008	
1. USA	1085	1. USA	1079	9.4%
2. Singapore	689	2. France	797	6.0%
3. France	632	3. Singapore	637	5.5%
4. Germany	555	4. Japan	575	4.8%
5. Japan	538	5. Spain	467	4.7%
6. Belgium	470	6. Germany	440	4.1%
7. Netherlands	458	7. Netherlands	428	4.0%
8. Austria	421	8. Italy	413	3.7%

17) 2009년도 주요 국가별 개최순위는 미국(1,085건)이 1위를 차지했으며, 싱가포르(689건) 2위, 프랑스(632건) 3위, 독일(555건) 4위, 일본(538건) 5위 ; <http://blog.naver.com/tournews21?Redirect=Log&logNo=40108580792>

Country	Number of meetings	Country	Number of meetings	Percentage of all meetings (11,486건/2009년)
	2009		2008	
9. Italy	391	9. Belgium	383	3.4%
10. Spain	365	10. UK	349	3.2%
11. ROK	347	15 ROK	293	3.02%

자료 : UIA,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2008-2009, Press Release, The full report will be available from September 15th 2010. By Joel Fischer ; <http://www.uia.be/node/325603>

특히 싱가포르는 국제협회연합(UIA) 기준 2008년 세계 3위(2009년 세계 2위국 부상), 아시아 1위의 국제회의 개최국으로 지난 2006년에 입국 방문객 수 1,700만 명을 목표로 한 '투어리즘 2015'계획을 발표하면서 '컨벤션 및 전시부문 아시아 선도'란 목표를 설정하고 MICE 부문에서 2015년까지 105억 싱가포르달러를 달성을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¹⁸⁾

이밖에, 세계 순위 10위권 국가들의 국제회의 개최건수를 보면, 스페인 467건(4.21%), 독일 440건(3.97%), 네덜란드 428건(3.86%), 이탈리아 413건(3.73%), 벨기에 383건(3.46%), 영국 349 건(3.15%) 순으로 나타나 상위 10개국이 개최한 국제회의는 5,568건(50.23%)으로 전체 국제회의 개최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회의 개최건수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아시아 지역의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1,366건에서 2,402건으로 75.84%의 급격한 성장을 보였고, 전체 국제회의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 또한 14.91%에서 21.67%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중, 싱가포르와 일본은 동기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내어 관련 국가와의 무역통상액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싱가포르는 2008년 637건의 국제회의를 개최, 전년도 466건 대비 36.70% 증가하였으며, 지난 5년간 308.33%의 성장률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도 2008년 575건의 국제회의를 개최, 전년도 대비(448건) 28.35% 성장하였으며, 지난 5년간 179.13%의 성장률을 보였다.

18) 위클리홍콩(<http://www.weeklyhk.com>), 2009/11/19, 13:47:43 입력 기사 인용

〈표 4〉 2009년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순위
(Top international meeting cities in 2008)

City	Number of meetings 2009	City	Number of meetings 2008	Percentage of all meetings (11,486건/2009년)
1. Singapore	689	1. Singapore	637	6.0%
2. Brussels	395	2. Paris	419	3.4%
3. Paris	316	3. Brussels	299	2.8%
4. Vienna	311	4. Vienna	249	2.7%
5. Geneva	183	5. Barcelona	193	1.6%
6. Berlin	171	6. Tokyo	150	1.5%
7. Prague	170	7. Seoul	125	1.5%
8. Stockholm	159	8. Budapest	116	1.4%
9. Seoul	151	9. Copenhagen	104	1.3%
10. Barcelona	148	10. London	103	1.3%

자료 : 2009 ICCA Statistics Report ; <http://k-mice.visitkorea.or.kr/notice.kto> 참조 재 작성

3. MICE 뷰로의 개념

1) MICE 뷰로의 개념

컨벤션 MICE 뷰로(Convention MICE Bureau)는 국제회의 유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팀으로 국제회의 유치를 추진하는 국내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대부분 유치추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하지 못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하는 공공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제회의의 유치추진 절차에서부터 행사장 선정, 소요 예산 분석, 유치제안서 작성, 현지설명회 개최, 마케팅, 국제기구 임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까지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회의 유치에 관한 정보를 얻어 역으로 국내 관련단체에 유치를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MICE 뷰로의 주요 업무와 기능

국제회의 유치활동 및 국내 개최 국제회의 운영지원, 홍보선전활동, 국제회의관련 정보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국제회의 산업 육성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가 국제회의 전담기구로서의 그 주요 업무 영역 및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5> MICE 뷰로의 주요업무

주요 업무	업무내용
① 유치가능 국제회의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 유치의향조사 - 국제기구 자료에 의한 유치가능 국제회의 조사 등 - 유치가능성이 높은 국제단체에 대한 세일즈콜 및 유치 권유 활동
② 국제회의 유치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 유치절차 안내 및 자문 - 유치제안서 작성 및 환영서신 제공 - 보조금 지원(유치제안서 인쇄, 국제기구 간부 사전답사, 기념품 등) - 한국홍보간행물 제공 및 비디오 대여 - 한국홍보영상물 상영 및 한국홍보데스크 운영 지원 - 공사 해외지사망을 통한 유치 지원
③ 국내 개최가 확정된 국제회의 주관단체에 대한 지원	<p>O 당해연도 개최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 개최관련 정보제공 및 자문 - 보조금지원(참가안내서인쇄/관광프로그램운영/문화예술공연/기념품) - 한국홍보 간행물 제공 및 비디오 대여 - 한국홍보영상물 상영 및 관광안내데스크 운영 지원 <p>O 참가자 유치증대를 위한 사전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해외 지사망을 통한 홍보 - 보조금 지원 (기념품 등) - 한국홍보간행물 제공 및 비디오 대여
④ 해외 홍보선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 전문전시회 참가 - 유관인사 방한 초청지원 - 홍보간행물제작 및 배포 : 슬라이드/비디오/국제회의시설안내책자 - 인터넷에 국제회의 홈페이지구축(국,영문)
⑤ 국제회의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산업 전 개최 - 해외 전문교육 참가 지원 - 지방 국제회의세미나 개최 - 국내 국제회의 전문가 교육 실시
⑥ 정보 수집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홈페이지내 국제회의 관련정보 제공(국문) - 국제회의 DB 정보 제공 - 국제회의 시설 조사 - 국제회의 개회 실적 및 계획 조사 - 컨벤션 캘린더 및 개최현황 발간 및 배포

자료 : <http://cafetea.co.kr/board/view.php?id=convention&no=12> 참조하여 필자 재 작성

이러한 MICE 뷰로의 주요 기능으로는 먼저 대정부 정책건의기능으로 ① MICE 관련법 및 제도 개선방안 건의, ②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등에 대한 건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활동 전개활동으로 ① 국제회의산업전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한 업계 육성 ② 해외연수 ③ 전문인력양성교육 개발 등의 인력양성 ④ 간행물 및 인터넷을 통한 회원사 소개 등 대 국민 홍보활동 전개기능과 함께 컨벤션 뷰로 추진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기능으로 ① 정보수집 및 제공(회의개최의향조사, 세계 국제회의 동향 등) ② 출판물 제작 및 배포(컨벤션캘린더, 국제회의개최현황) ③ 해외홍보(광고, 언론인 초청, 전시박람회 참가) 등과 관련 된 제 기능을 수행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서 기능하고 있다.¹⁹⁾

3) 국·내외 주요 MICE 뷰로 현황

① 국내 공공기관 MICE 뷰로

조직명	웹사이트
한국관광공사 코리아컨벤션뷰로	www.koreamice.org
서울컨벤션뷰로	www.miceseoul.com
부산컨벤션뷰로	www.busancvb.org
대구컨벤션뷰로	www.daegucvb.com
제주컨벤션뷰로	www.jejucvb.or.kr
대전컨벤션뷰로	www.dcckorea.or.kr/cvb/
인천컨벤션뷰로	www.into.or.kr
광주컨벤션뷰로	www.gwangjuccb.or.kr

19) 김장신, 「컨벤션기획 및 실무 - 개정증보판」, 나눔의집, 2008, pp.78~82.

② 국내 민간 MICE 뷰로

센 터 명	웹사이트
코엑스(COEX)	www.coex.co.kr
벡스코(BEXCO)	www.bexco.co.kr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www.excdaegeu.co.kr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www.iccjeju.co.kr
한국국제전시장(KINTEX)	www.kintex.com
김대중컨벤션센터	www.kdjcenter.or.kr
창원컨벤션센터(CECO)	www.ceco.co.kr
인천국제컨벤션센터(INTO)	www.songdoconvensia.com
대전국제컨벤션센터(DCC)	www.dcckorea.or.kr

③ 해외 주요 MICE 뷰로

국가	뷰로명	웹사이트
미국	New York Visitors &Convention Bureau	www.nycgo.com
독일	German Convention Bureau	www.germany-meetings.com
프랑스	Paris Convention Bureau	www.convention.parisinfo.com
브라질	Sao Paulo Convention &Visitors Bureau	www.visitesaopaulo.com
스페인	Madrid Convention Bureau	www.esmadrid.com
영국	Visit London Event Organisers	business.visitlondon.com
일본	Tokyo Convention &Visitors Bureau	www.tcvb.or.jp
중국	Beijing Convention Bureau	www.conventionandvisitorsbureau.com
호주	Sydney Convention &Visitors Bureau	www.scvb.com.au
싱가폴	Singapore Exhibition &Convention Bureau	www.visitsingapore.com

자료 : ①, ②, ③ <http://k-mice.visitkorea.or.kr>에서 발췌하여 재 구성

IV. MICE 뷰로 활성화 방안

1. 우리나라 MICE 뷰로 운영상의 제 문제

컨벤션 MICE 뷰로(CVB :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는 컨벤션 개최 목적지 및 관광 방문지로서의 도시에 대한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관광과 컨벤션 개최지 마케팅에 있어 중심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 MICE 뷰로간 광고홍보 활동과 각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조, 국제기구와의 체계적인 협력 및 연동체계가 미흡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유기적인 협력과 역할분담이 모호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다양하고 복합적 접근방법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MICE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MICE의 각 분야에 대한 시장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MICE의 네 가지 부문 중 컨벤션과 회의에 관한 국내자료는 유일하게 국제회의 현황만이 파악되고 있으며, 인센티브관광의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통계를 통한 아웃바운드인센티브 수요만이 조사되고 있고 반면, 국내로 유치된 인센티브관광의 통계는 인바운드 관광에 포함되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MICE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의 경우 ICCA, UIA 등 해외기관이나 관광청에서 발행하는 자료집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통계조사는 전시부문을 제외하고 컨벤션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조사가 매우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시장파악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²⁰⁾

2. 정부지원의 MICE 통합 뷰로 활성화

한국관광공사 산하 코리아컨벤션뷰로는 1979년 국제관광공사법에 의거하여 국제회의부로 설치되었던 것이 그 전신이다. 코리아컨벤션뷰로는 국제회의 유치활동 및 국제회의 개최지원, 해외 마케팅활동, 국제회의관련정보제공, 전문인력양성, 컨벤션업계 네트워크 구축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컨벤션 중앙전담기구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컨벤션 정책의 개발과 집행, 컨벤션진흥과 관계법령의 입안 및 시행 등의 업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1996년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회의

20) 안경모 · 주현식 · 김수정, “한국의 MICE산업 발전요인이 중앙정부 전담기구의 역할 및 산업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연구」 제12권 3호, 2008, pp.272-273.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관광통상의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개최가 확정된 국제회의와 국내개최가 확정되지 않은 국제회의 중 국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회의개최지 결정 관련 임원회의 및 총회에 참가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하여 왔다.²¹⁾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브랜드 조사에 의하며 우리나라의 정책외교(24위), 전통문화자원(25위), 역사문화매력도(26위), 자연경관(26위), 현대문화(20위) 등으로 평가되어 MICE의 전후방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관광분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역악한 것으로 나타났다.²²⁾ 따라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MICE 산업을 통해 그 경쟁력을 제고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전략적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한진수·김태현(1999)과 이원봉(2003)은 정부의 다양한 차원의 정책지원이 컨벤션 산업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된 바 있다. 컨벤션에서 MICE로의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현 시점에서 MICE 진흥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정비가 요구되며, 현실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자명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책당국은 이러한 상황적 변화에 대응하여 2009년 1월 '컨벤션에서 MICE'로 사업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MICE 분야를 '17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집중투자 정책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관광공사는 기존의 코리아컨벤션뷰로의 업무영역을 각 지역본부 단위로 구분하여 조직인력을 재편성하고 Korea MICE Alliance, MICE 상품개발, MICE 통계조사, MICE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MICE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정책을 기획·입안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²³⁾

한편 2003년에 설립된 대구컨벤션뷰로를 필두로 부산(2004년), 서울(2005년), 대전(2005년), 제주(2005년), 광주(2007년) 등 6개 지방 컨벤션뷰로가 구축되었고 이를 통하여 지방의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국내·외 마케팅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2008년 4월과 10월에 각각 개관한 대전컨벤션센터와 송도컨벤시아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MICE 기반시설의 확충은 MICE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제고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MICE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 박숙진, "한국컨벤션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 연구』, 제8권 1호, 2003, pp.18-32.

22) 이동훈·이민훈, "국가브랜드지수 조사결과"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9.

23) <http://k-mice.visitkorea.or.kr> 홈페이지 메뉴 분석을 통하여 필자가 정리하여 작성

1) 공공 MICE 뷰로의 현안 문제점

(1) 컨벤션시설 인프라 불균형 해소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2000년 이후 건립되었거나 확장 추진 중인 컨벤션센터는 컨벤션센터만 단독으로 건립되어 있는 실정이고, 회의장 및 전시장 규모는 증가하나 관련 인프라 및 부대시설 부족 하는 등 부대 시설인프라 불균형으로 국제회의 유치경쟁력 제고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MICE와 연관 된 새로운 부가가치창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회의 개최의 빈도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확장되거나 신설되는 시설 역시 주변 인프라 여건 개선 없이 컨벤션시설만 건립하고 있어 시설확장보다는 MICE 복합단지화로 질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²⁴⁾ 특히 ASEM, G20정상회의, APEC 등 국가 정상급 대표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컨벤션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국가 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다액의 통상협상이 벌어지는 등 MICE가 단순히 관광산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 비즈니스를 포함하는 국제비지니스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들에게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통상비지니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제회의장 주변의 물리적이고 복합적인 시설 및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첨가 된 유비쿼터스형 컨벤션 MICE 뷰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주요국의 정부차원의 컨벤션 MICE 뷰로 구축사례이다.

〈표 6〉 유비쿼터스형 MICE 복합화 사례

브뤼셀	- 컨벤션시설 부근에 4개의 컨벤션특구 (Convention District) 조성 - Rogier/Grand'Place, Louise, Europe	- 각 지구별 차별화된 특징과 장점 - 과잉경쟁 방지 - 주최자에게 다양한 옵션제공
싱가포르	- 마리나베이	-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시공 - 싱가포르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복합 리조트의 메인 프로젝트
마카오	- 베네시안 마카오	- MICE 복합형 국제회의장

자료 : 관련자료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필자 작성

24) 김희수·박경열, "MICE 시설과 인접지역 복합화 추진방안", 「관광연구」, 한국관광연구원, 2009, pp.59~71 ; MICE 복합화는 MICE 관련 단일 건축물의 기능상, 시설상 복합화를 의미하는 시설복합형 또는 신규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단지형 보다는 다소 광의적인 수준에서 MICE 시설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의 다양한 기능(숙박, 쇼핑, 업무 등)이 밀집 되는 형태를 의미함.

(2) 차별화 된 글로벌 정책지원

MICE 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전략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관련 정책기반 미비로 인하여 글로벌 MICE 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지원 및 마케팅 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컨벤션을 통한 경제·통상 분야에 대한 국제비지니스로의 전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표 7〉 세계 주요국의 지원정책

국가별	주 요 내 용
싱가포르	- SECB(Singapore Exhibition & Convention Bureau)에서 MICE산업 지원총괄 - 『Tourism 2015』 전략 추진
홍 콩	- 2008년 9월 MICE산업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인 MEHK 신설
대 만	- The Taiwan MICE Industry Advancement Project 시행 (MICE Industry Consulting Committee)
태 국	- TCEB(Thailand Convention and Exhibition Bureau)에서 MICE산업 정책총괄
호 주	- 2008년 2월, MICE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및 호주 경제에의 기여도 극대화 위한 전략으로 호주자원에너지관광부(Department of Resources, Energy and Tourism) 주도로 National Business Events Strategy 2020 수립 - MICE전략실행그룹(Joint BE Strategy Implementation Group) 제안

자료 :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ICEM), 국내 MICE산업 구조분석 및 경쟁력 강화대책 리뷰, 2009.

따라서 지구촌의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MICE 산업을 통괄하여 살펴볼 수 있는 컨벤션 MICE류로 플랫폼의 구축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는 이미 컨벤션 MICE산업의 규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전담조직 및 세분 시장별 차별화된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밴치마킹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컨벤션산업 환경에 적합한 모델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8〉은 주요국의 컨벤션 MICE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사례이다.²⁵⁾

2) 주요대책

최근 들어 국제회의 개최의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ASEM, G20정상회의,

25)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ICEM), “국내 MICE산업구조분석 및 경쟁력 강화대책 리뷰(Review) : 가치사슬접근법(The Value Chain Approach)”, 2009, p.18~20 참조

APEC 등 국가 정상급 대표들이 참여하는 글로벌형 국제회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컨벤션 MICE 산업의 위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중앙전담기구인 한국관광공사의 MICE뷰로와 지방 컨벤션뷰로, 컨벤션센터 등이 상호협력하여 유망 국제회의를 발굴할 수 있는 유치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 나아가야 하며, 컨벤션 스타브랜드육성, Global MICE Alliance 조직 등 MICE 개최 목적지로서의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정책차원의 컨벤션 MICE 뷰로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향후 국내 컨벤션센터 주변지역의 융·복합 단지화가 실현되어야 하며, 아울러 정부간 MICE뷰로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특별 전담기구설립 및 각국 정부 간 및 유관 기관 간 U-biz 협력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3. 민간차원의 MICE 통합 뷰로 활성화

1) 현안 문제점

(1) 적극적인 시장개발 및 수요창출이 핵심

MICE산업의 가치사슬에 있어 MICE 시장(수요)의 개발 및 확대가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며, 시장 선도적 관점에서 정부의 관심 및 정책이 가장 필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민간부문은 시장개발 동기부족으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인하여 정부개입 및 역할 매우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컨벤션 MICE 산업구조는 소규모 사업부로 분화되어 있으며 기존시장의 발전 및 신규시장개발에 대한 투자 부족 등 관련 시장실패의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컨벤션뷰로 유치 및 개최지원 기능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수요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신규 MICE시장 창출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산업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주요국의 민간차원 컨벤션 MICE 뷰로 정책사례이다.

〈표 8〉 세계 주요국의 전담조직 및 지원정책²⁶⁾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E시장 각각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 개발 - National Business Events Strategy for Australia 2020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B 내에 MICE시장 개발부서를 별도로 설치 - 적극적인 시장개발을 위해 'Attract', 'Create', - 성장전략시행 : "Singapore Inc" Approach ⇒ 멀티에이전시(multi-agency), 민관상호협조(private-public sector co-operation), 상호조정(co-ordination) - 'Attract' 전략의 일환으로 글로벌 MICE 주최자를 유치하고, 이들을 통해 싱가포르에 MICE 행사를 유치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 style="margin: 0;">Singapore Inc</p> <p style="margin: 0;">민관 상호 협조 (private-public sector co-operation)</p> <p style="margin: 0;">멀티 에이전시 (multi-agency)</p> <p style="margin: 0;">상호조정 (co-ordination)</p> </div>

자료 :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ICEM), “국내 MICE산업 구조분석 및 경쟁력강화대책 리뷰”, 2009, p.18~20
참조 재 구성

(2) 국제회의 개최 및 운영

글로벌 MICE분야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PCO(전시전문기획자 : Professional Convention or conference Organizer)의 행사기획 및 운영능력, 관련서비스업체의 서비스품질, 경쟁력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MICE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업계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및 방안의 구심점은 민간 PCO를 비롯한 관련 서비스업체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이루는 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및 국제회의 기획업체의 대부분이 중소 규모 업체끼리 경쟁하는 시장 환경으로 수익성 저하 및 서비스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MICE의 개최 및 운영은 MICE 산업의 가치사슬에 있어 시장의 산업구조 선진화와 민간업계의 경쟁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민간부문이 MICE 산업구조 선진화로 유도할 수 있는 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6)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ICEM), 전계서, p.18~20 참조

2) 주요대책

홍콩은 2008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2천만 불을 MICE 프로모션에 투입하여 MICE 도시국가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행사유치 활성화를 위해 2008년 4월 1일부터 범인세(16.5%), 소득세(15%)도 감면과 아울러 홍콩관광청 산하 홍콩컨벤션센터가 무역박람회 및 전시회를 담당하고, 홍콩컨벤션전담기구(Hong Kong Convention & Incentive Travel Bureau)는 국제회의 및 기업협회, 인센티브관광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에도 인센티브 관광이나 컨벤션 및 전시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마케팅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²⁷⁾

MICE 산업의 시장개발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MICE 유치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첫째, 민간업계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합리적 시장환경 조성과 업계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PCO 등 고급인력의 지속유입을 통한 서비스제공의 전문성 강화 둘째, 시장 확산전략으로는 글로벌 MICE 시장개발 전담조직 구성, 기존조직 내 글로벌 MICE시장개발 기능추가, 해외 MICE 전담기지구축, 글로벌 MICE 시장정보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셋째, 글로벌 브랜드형성을 위해서는 MICE의 신규개발 및 세계화 추진, 세계적 브랜드 MICE의 아시아판 국내 유치, 넷째, MICE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민간 MICE 업체의 대형화 및 글로벌화 유도지원, 민간 MICE 업체의 합리적 시장환경 조성,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4. 통상유발을 위한 MICE 마케팅체계 구축

1) 현안 문제점

2009년 국제회의개최 세계 2위로 올라선 싱가포르는 MICE시장에 업무관광(Business Travel)을 포함하여 BTMICE를 새로운 컨벤션산업군으로 분류하여 기금마련, 행사유치 기관 및 주최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산업-정부 간 클러스터 형성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²⁸⁾ 구체적으로, 싱가포르 관광청은 MICE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글로벌 마케팅 수행을 위해 2006년부터 “Be in Singapore campaign”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까지 싱가포르에 각종 비즈니스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5개년 마케팅 캠페인으로 관광개발기금으로 조성된 기금 중 일부를 투자하여 회의주최자나 참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

27) 안경모·주현식·김수정, 전계서, p.273 ; 태국은 관광청 산하 MICE 전담부서로 TICA(Thailand Incentive and Convention Association), TCEB(Thailand Convention & Exhibition Bureau) and TEA(Thailand Exhibition Association) 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8) 내일신문, ‘전시컨벤션 미래 성장동력이다, ③ 컨버전스가 미래의 길’, 2008-04-18

해 2006년 싱가포르 관광객의 28%가 MICE 방문객이며, 관광수입의 35% MICE 방문객들로부터 발생되었다.²⁹⁾

MICE 유치성공률 증대 및 브랜드 MICE의 세계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및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치성공률(conversion rate)을 높여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포지셔닝, 시장별 마케팅전략의 차별화, 지자체, 관련단체 및 업계의 전사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MICE산업의 성격상 민간주도의 시장수요 창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지원정책이 수반되어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및 공적 컨벤션 뷰로를 활용하여 글로벌 MICE 광고, 국제전시회 참가 등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하여 국제회의 개최 도시들이 갖는 차별성과 연계하는 형태의 협조 및 홍보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주요대책

MICE산업은 국제적 홍보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MICE 산업분야에 먼저 진출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는 안정적이고 선진화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바탕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아시아 지역의 MICE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표 9〉 MICE 마케팅방안

■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MICE 캠페인 전개 - 한국의 날 행사 : 해외 주요 MICE 개최지 바이어 초청 - 원스톱 서비스체계 도입
■ 차별화 된 대고객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레벨 업 - 참가자 소비자 출 확대를 유도위한 전략실천 - 재방문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함. - MICE 연관산업(식음료/쇼핑/숙박/관광 등)과의 연계성 강화 - 패키지 상품개발
■ 부가가치 창출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ICE 특화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 컨벤션시설 내 공항카운터 설치

29) 안경모·주현석·김수정, *ibid.*

5. MICE 관련 전문 인력양성

1) 현안 문제점

우리나라 MICE의 성공적 개최에 또 다른 걸림돌은 대형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전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전시산업지원이 수도권 중심(집중 육성 18개 전시회 중 부산에서 개최되는 조선해양대전 빼고 17개)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MICE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인력의 전문화 또한 절실하다. 몇몇 대학에서 국제회의 관련 학과가 개설,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03년부터 컨벤션기획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업계에서 조차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상품개발 및 독특한 이벤트를 관광객 유인에 활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그들의 창조적 발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드웨어적 관광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성있는 상품기획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이 절실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MICE 전담인력은 행사를 준비하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³⁰⁾

이러한 인력양성과 더불어 MICE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업계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및 방안의 구심점은 민간 PCO, PEO(전문가파견회사; Professional Employee Organization), AMC(자산관리회사; Asset Management Company) 등을 비롯한 관련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컨벤션 MICE 관련 인적자원개발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여 기초인력양성(컨벤션기획사 등), 행사운영인력양성에만 편중되어 있어 과잉공급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반면, 글로벌컨벤션 MICE 유치 및 MICE 마케팅 전문 인력양성시스템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2) 주요대책

업계에 따르면 APEC, G20 정상회담 등 대규모의 국제행사 개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행사의 주관기관이나 PCO업체들로부터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영어MC의 의뢰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맞는 공급이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국제회의에 대비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현실이다.³¹⁾

30) 안경모, 컨벤션경영론, 백산출판사, 2006, p. 277.

31) <http://search.daum.net/search?w=tot%CS%EB%B9%F8%BF%AA%B4%EB%C7%D0%BF%F8> ; 뉴스와이어 | 입력 2010.

이에 대하여 안경모·주현식·김수정(2008)은 MICE발전의 인적자원 육성요인은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의 전담기구의 역할에 모두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여 전문 인력육성을 위한 정부 및 업계 담당자의 지속적 근무필요, 산·관·학네트워크 시스템 가동을 위해서 정부와 전담기구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정부의 역할 중 '전담부서조직', 'MICE 유치 중장기전략수립' 항목이 인적자원육성과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³²⁾

따라서 컨벤션 MICE전문 인력양성의 불균형 문제는 다양한 MICE에 대한 교육수요조사를 통하여 장래에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컨벤션전문 인력양성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국제회의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V. 결 론

세계는 지금 그린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MICE 산업을 통하여 국가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MICE 산업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역사가 일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MICE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MICE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실천해간다면 '2012년 외래 관광객 1천 2백만명 유치, 관광수입 130억 달러'의 목표달성이라는 문화관광정책과 맞물려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통합 MICE뷰로의 구축, 전문 인력의 부족, 관련업계의 영세성, 체계적인 산업 육성계획 추진미흡, 관련기관 및 단체들의 협력체계 약화 등 제 과제들이 먼저 해결 되어야 하며 관련 시설인프라의 구축이라는 가장 시급한 난제를 해결 하여야 한다. 따라서 높은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외화획득 산업인 MICE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과 더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도 차근차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글로벌 통상의 활성화를 위한 MICE 뷰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정비를 포함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서

의 제도적 지원 방안의 강구와 함께 국제기구의 동향 파악과 입수 된 국제회의 개최정보의 적시적소에 대한 공급이 가능한 컨벤션전담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컨벤션의 수도권 및 서울편중 현상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및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거점도시 대표 컨벤션 전담기관의 설립 및 지원을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격심한 MICE 유치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컨벤션 MICE 뷰로를 통한 해외협력 체제를 확대함은 물론, 세계의 컨벤션 잠재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MICE 뷰로의 국가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각 도시를 대표하는 MICE 특화 도시로서의 명확한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MICE 전담기관과 관련업계간의 체계적인 공동협력시스템을 강화함으로서 대규모 MICE 유치성공을 위한 인프라(호텔 및 항공사, PCO 등)정비 및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관광지와 연계한 컨벤션센터 건설 및 운영을 촉진, 부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의 기획 등을 통하여 컨벤션 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규상, “한국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전략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묘정, “컨벤션 개최지의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용관, “경기도 컨벤션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연구」제1호, 한국관광경영학회, 1997.
- 김우곤, “국내 컨벤션산업의 현황 및 경제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경영연구」제12집, 1997
- 김희수 · 박경열, 「MICE 시설과 인접지역 복합화 추진방안」, 한국관광연구원, 2009.
- 김수현, 「컨벤션산업론」, MJ미디어, 2003.
- 김성혁, 「국제회의 산업론」, 대왕사, 1985.
- 김연숙, “한국 컨벤션 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 한남대학교 사

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장신, 「컨벤션기획 및 실무 - 개정증보판」, 나눔의집, 2008.

이용민, “제주지역 컨벤션 참가자의 만족 및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 : 서비스 품질과 관여도를 중심으로”, 부경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이동훈 · 이민훈, “국가브랜드지수 조사결과”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9.

안경모 · 주현식 · 김수정, “한국의 MICE산업 발전요인이 중앙정부 전담기구의 역할 및 산업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지역연구」 제12권 3호, 2008.

이동훈 외, ‘서울 G20 정상회의의 기대효과’ 「CEO information」, 772호, 삼성경제연구소, 2010. 9.

조현호 · 주현식 · 서윤정, 정준환, 「컨벤션기획론」, 대왕사, 2006.

주영민 외, “MICE산업의 기회와 도전”, 「SERI 경제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2010. 2.

최태광, 「글로벌시대의 컨벤션기획실무론」, 백산출판사 2004.

한국관광공사 코리아컨벤션뷰로, ‘국제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2008.

한국관광공사, 2006~2008 국제회의 개최현황, 2009. 11.

한국관광공사, http://k-mice.visitkorea.or.kr/notice.kto?func_name=list&pgbn=3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ICEM), 국내 MICE산업구조분석 및 경쟁력 강화대책 리뷰(Review) : 가치사슬접근법(The Value Chain Approach), 2009.

헤럴드경제, 2010년 06월 23일자

UIA,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2008, Press Release, 2009, 6 ; <http://www.uia.be/node/325603>

UIA,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2009, Press Release, The full report will be available from September 15th 2010. By Joel Fischer ; <http://www.uia.be/node/325603>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623000159>

Johnson, L. *MICE- Size and Economic impact of the meeting sector*, BTR Tourism Research Report. 1, 1999, pp.9-18.

McCabe, V., et al.(2002). *The Business and Management of Convention*. John Wiley & Sons.

<http://search.daum.net/search?w=tot%C5%EB%B9%F8%BF%AA%B4%EB%C7%D0%BF%F8> ;
뉴스와이어, 2010.06.23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79>

<http://blog.naver.com/tournews21?Redirect=Log&logNo=40108580792>

2009 ICCA Statistics Report ; <http://k-mice.visitkorea.or.kr/notice.kto>